

# 함평군, 국비 확보 총력... 국회방문 전방위건의 활동 전개

## 한병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등 면담... 내년도 국비 확보에 총력

전남 함평군(군수 이상익)이 지역 핵심 현안 사업을 2026년도 정부예산에 반영하기 위해 총력전을 전개한다.

함평군은 3일과 4일 이틀간 2026년도 정부예산 국회 심의 일정에 맞춰 국회를 방문해 주요 현안 사업의 필요성과 지역 파급효과를 설명하고 국고 지원을 요청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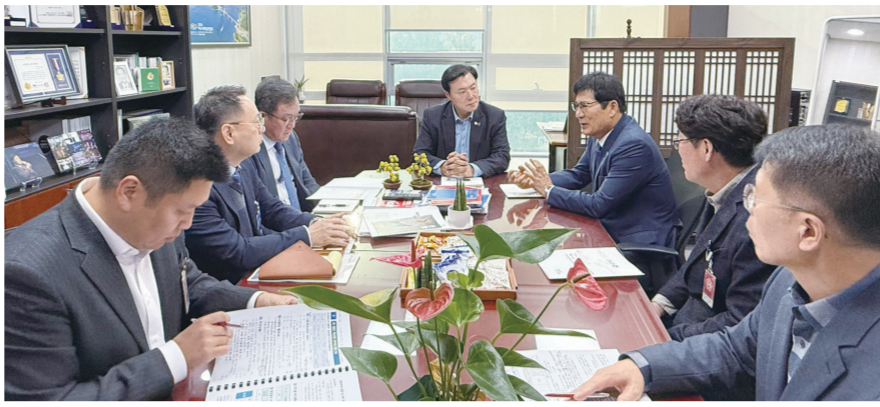
이상의 함평군수를 비롯한 군 관계자들은 한병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해 이기호·신정훈·문금주·조계원·안도걸·정진욱·전종덕·박정현 의원 등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및 주요 상임위원회 위원들을 잇달아 만나 함평의 핵심 현안 사업 추진 필요성을 설명하고 지원을 건의했다.

또한 함평군의 주요 사업을 담은 국회 대응 서면질의서를 전달하며 적극적인 협

조를 요청했다.

이번에 군이 건의한 주요 핵심 사업은 ▲한국도로교통공단 교통안전교육원 건립(424억원) ▲AI 첨단 축산업 융복합 밸리 조성(6,754억) ▲함평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개선사업(12억) 등 3개 사업 총사업비 7,190억 원에 대해 35.1억 원의 국비 반영을 요청했다.

현재 함평군은 ▲순분면 대전지구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468억 원) ▲해보면 중분록 노후상수관망 정비사업(385억 원) ▲고품질 쌀 유통 활성화 사업(170억 원) ▲석성지구 면단위 하수처리시설 정비사업(135억 원) ▲월야면 빛그린로 생활환경 인프라 구축사업(33억 원) 등 총 75개 사업, 666억 원이 2026년 정부예산안에 반영된 상태다.



군은 예산안이 최종 확정될 때까지 중앙부처 및 국회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건의 활동을 이어가, 함평군 사업이 내년도 정부예산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이상의 함평군수는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변화와 도약을 이루기 위해, 정부예산이 확정되는 날까지 모든 행정력을 총동원하겠다"며 "미래 성장 기반을 강화해 군민이 행복한 희망찬 함평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함평/전광훈 기자



## 진도군, 11월 '달빛 정례회' 개최

### 책임행정 다짐...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11월'

진도군은 11월 3일(월) 오후 5시, '보배섬 국화축제'가 열리고 있는 진도개떼마파르에서 11월 '달빛 정례회'를 개최했다.

11월 정례회는 매일 대회의실에서 진행되던 기존의 형식을 벗어나, 국화향기와 함께 축제 현장에서 진행돼 눈길을 끌었다.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책임행정, 함께 만드는 진도군'을 주제로 진행된 이번 정례회는 공직자들이 함께 모여 한 해를 되돌아보고, 남은 기간의 행정 방향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정례회에서 김희수 진도군수는 '보배섬 국화축제', '국나잇 야행', '국대무형문화축제', '군민의 날 기념식'과 '체육대회' 등 최근 잇따라 열린 대규모 행사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직원들의 헌신과 노력에 감사를 전했다.

또한,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부서별 주요 성과를 점검하고, 내년의 업무 계획을 차질 없이 준비할 것을 강조했으며, 불필요한 사업은 정리하되 효과 검증된 정책은 속도감 있게 추진해 행정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기관 평가와 재정집행 관리 ▲공공비축미 수매 ▲겨울 채소 재배지도 ▲산불 예방 ▲취약계층 보호 등 주요 현안에 대한 철저한 대응과 빈틈없는 행정 관리를 당부했다.

특히, 수매 현장의 안전사고를 철저히 예방하고, 취약계층이 따뜻하고 안전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세심한 보호 대책을 마련하는 데에 행정 역량을 집중할 것을 강조했다.

김희수 진도군수는 "한 해의 끝자락에서 다시 한번 '조심'을 다지고,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행정을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하자"라며, "공직자 여러분이 바쁜 업무 속에서 잠시 재충전의 시간을 가지며 활기찬 11월을 시작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정례회에서 김희수 진도군수는 '2025 남도국제미식산업박람회 시군 대표유리 전시경연'에서 대상을 받은 진도전통식품의 김민아 씨에게 상장을 수여하고, 바르게살기운동 진도군협의회 김순복 이사과 바르게살기운동 진도군 의신면위원회 주명계 사무장이 지역사회 발전에 헌신한 공로에 대해 전라남도지사 표창을 수여했다.

진도/오재명 기자

## 담양군 용면, 신도불이 농산물 직거래 장터 성황리 개최

### 추월산 잣은 관광객과 농업인 잇는 지역 상생 장터로 호응

담양군(군수 정철원)은 지난 1일부터 2일까지 이틀간 용면 주민자치회 주관으로 추월산 주차장에서 '용면 신도불이 농산물 직거래 장터'를 개최했다.

이번 장터에는 용면을 비롯한 담양 지역 농업인들이 직접 재배한 고구마, 버섯, 단감 등 신선한 농산물을 선보이며 관광객들에게 큰 인기를 끌었다.

가을 정취를 즐기기에 추월산을 찾

은 방문객들은 지역 농가에서 생산한 농산물을 합리적인 가격에 구매하며 지역과 상생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군 관계자는 "담양의 신선한 농산물을 관광객에게 알릴 수 있는 의미 있는 자리였다"며 "앞으로도 지역 농업인과 관광객이 함께하는 직거래 장터를 꾸준히 이어가겠다"라고 말했다.

담양/이종욱 기자



완도군은 수산 식품 해외시장 확대를 위해 지난 10월 28일부터 29일까지 인천 송도컨벤시아에서 열린 '2025 한국 비즈니스 엑스포'에 참가해 완도 수산물 공동 홍보관을 운영했다.

'한국 비즈니스 엑스포'는 세계적인 규모의 행사로 올해는 세계한인무역협회 회원과 해외 바이어 등 3천여 명이 참여했다.

## 완도군, 한국 비즈니스 엑스포에서 수산물 수출길 넓혀

### 162만 불 수출 협약 체결 독일, 체코, 프랑스 시장 진출 기회

공동 홍보관에는 완도바다영어로조합법인, 완도다어업회사법인(주), 어업회사법인인경영수산(유), 더푸드주식회사완도, 완도맘(영), (유)해성인터내셔널, ㈜해정정, (유)하나물산 등 8개 업체가 참가했다.

참가 업체는 동결건조 전복죽, 전복 어묵, 순살 가공 전복, 광어 죽, 해초 면, 건어물 분말 등을 홍보하고, 162만 불(25억 원)의 수출 협약과 35만 불(5억 원)의 수출 계약을 체결하며 독일, 체코, 프랑스 등 3개

국 시장 진출의 기회를 만들었다. 한편 지난해 열린 '한국 비즈니스 엑스포 비엔나'에서는 1,080만 불의 수출 협약을 성사시키며 완도 수산물의 인기를 확인했다.

군은 향후 국내의 식품 박람회 및 전시회에서 공동관 운영과 수출 상담회를 개최하여 수산물 수출길을 더 넓혀갈 계획이다.

완도/장선우 기자

## 장성군, 미래 농업 이끌어 갈 인재 양성

### 장성미래농업대학 졸업식... 2개 학과 45명에 졸업증서 수여

장성군이 지난 30일 농업인회관에서 제18기 장성미래농업대학 졸업식을 가졌다.

이날, 군은 1년간 모든 과정을 이수한 18기 졸업생 45명에게 졸업증서를 수여했다. 졸업생 김현호 씨와 심강일 씨는 농촌진흥청장상을 수상해 동기들로부터 축하의 박수를 받았다.

장성미래농업대학은 1년 단위로 운영되는 전문 농업인 양성 과정이다. 올해는 '스마트기후대응학과'와 '청년국제농업학과'를 운영했다.

'스마트기후대응학과'에서는 이상기후

와 자연재해를 극복하고 농업을 영위할 수 있는 대응 방안을 배웠다. '청년국제농업학과'에선 사인머스켓 수출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현장실습 위주의 재배 교육을 진행했다.

김한중 장성군수는 "2008년 개강해 지금까지 총 41개 과정 1838명의 졸업생을 배출한 '장성미래농업대학'은 미래 농업을 이끌어 갈 인재들을 양성하는 핵심 교육 과정"이라며 "앞으로도 성공 영농을 이뤄갈 수 있도록 지원과 응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장성/황해연 기자

순천시(시장 노관규)가 운영하는 '순천만 흑두루미 탐조여행'이 한국관광공사가 주목한 로컬 체험관광 콘텐츠의 대표 상품으로 소개되며 순천의 생태철학을 담은 특화 여행 프로그램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한국관광공사는 국내 여행 활성화를 위해 지역의 고유한 매력을 체험할 수 있는 로컬 특색 콘텐츠를 발굴·홍보하는 지역 연계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으며, 그중

## 한국관광공사도 반한 '순천만 흑두루미 탐조여행'

### 순천만 생태자원을 담은 지역 특화 체험 여행으로 주목

에서도 순천만 흑두루미 탐조여행이 대표 상품으로 선정돼 전국에 소개됐다.

흑두루미 탐조여행은 단순한 철새 관찰을 넘어 자연과 사람의 공존이라는 순천의 도시 철학을 체험으로 구현한 프로그램이다. 철새 도래지인 순천만 습지를 배

경으로 전문 해설사와 함께 흑두루미 서식지를 관찰하고, 일몰을 감상하며 순천만의 생태적 감수성, 자연이 주는 쉼과 회복을 경험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시 관계자는 "흑두루미의 귀환은 단순한 생태현상이 아니라, 인간과 자연이 서

로를 신뢰하며 조화를 이루는 계절의 약속"이라며 "탐조여행을 통해 순천이 추구하는 생태철학과 치유도시의 방향을 시민과 함께 나누겠다"고 말했다.

한편, 순천만에는 매년 7천600여 마리의 흑두루미가 찾아오며, 이는 전 세계 개체수의 절반에 해당한다. 순천시는 철새 서식환경 보전과 생태관광의 균형을 위해 '담사르습지 도시'로서의 책임과 실천을 이어가고 있다.

순천/정성인 기자

